

## 책 소개하기

<지금은 라디오 시대>는 일제 식민 통치 아래에서 신음했던 1920년대 조선을 시대적 배경으로 한 작품입니다. 일제는 1919년 삼일 운동을 계기로 문화 정치로 신민지 지배 전략을 바꾸었어요. 그러자 그 동안 전래되었던 근대 문물이 빠른 속도로 사람들에게 전해지지요. 종로 거리를 가로지르는 전차, 교환원을 통해 연결되었던 전화, 그리고 선 없이 멀리 있는 소리를 전해 주던 라디오까지……. 근대 문물은 사람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 주었지만, 식민지 치하에서 우리 민족은 이 문물의 진정한 수혜자는 아니었어요. 일제의 지배 수단으로 이용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근대 문물을 독립의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새 문화의 주인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10대 소녀 호아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호아는 우미관에서 열리는 라디오 시험 방송을 들은 후, 라디오의 매력에 푹 빠져요. 이후 호아는 민족 독립의 희망의 전하는 라디오 방송을 하지요. 이 작품은 일제 강점기에 문화의 주인으로, 역사의 주인으로 우뚝 서고자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라디오를 타고 전해지는 민족 독립에의 염원을 들어 보세요.

## 독서 코칭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은 그 시대의 현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도 일제에 강제로 토지를 빼앗긴 채 상경한 호아의 엄마와 아빠, 외국인 선교사로 우리 민족과 시대의 아픔을 함께하는 메리 할머니, 조국의 독립을 위해 밤늦도록 토론하고 만세 운동에 앞장서는 경수 등이 등장해 삼엄했던 식민지 현실을 보여 주어요. 각 인물에 투영된 시대 현실과 아픔을 되새기며 작품을 읽어 보세요.

## 책 내용 익히기

1. 호아가 가진 특별한 재주는 무엇인가요?
2. 호아가 머리끝에 드리운 빨간 댕기를 호아에게 선물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3. 청계천으로 가던 호아는 사람들이 우미관 앞에 모여 있는 것을 보았어요. 사람들은 왜 우미관 앞에 모여 있었을까요?
4. 할머니의 비망록을 읽고 호아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무엇인가요?
5. 예전 말과 오늘날의 말을 같은 뜻끼리 알맞게 연결해 보세요.

①고삐	• 영화
②자동전화실	• 감기
③활동사진	• 초등학교
④보통학교	• 공중전화 부스

## 생각 키우기

호아는 “…… 우리의 봄은 멀리 있지 않다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빼앗긴 봄을 되찾는 그날까지 이 방송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라디오 방송을 합니다. 호아의 말에서 밑줄 친 ‘빼앗긴 봄’이 나타내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 정보 더하기

### →일본의 식민 정치

일본은 1910년 8월 29일 한일 병합이라는 강제 조약을 맺어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았어요. 그로부터 최고 기관인 조선총독부를 만들어 사람들을 억압하기 시작했지요. 정치 단체를 만들거나 정치적 의견을 내는 것은 모두 금지되었고, 이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강제로 끌고가 고문하거나 죽였어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데 경찰만으로는 부족해서 헌병까지 동원할 정도였지요.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도 삼엄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선생님들은 군복에 칼을 차고 수업을 했어요. 조선말로 수업을 했지만 일본어와 일본의 역사를 가장 많이 배웠고, 한국어는 선택 과목이었지요. 농민들도 수난을 겪었어요. 토지 조사를 빌미로 우리 땅을 빼앗아 일본인에게 주고, 우리 농민은 소작농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처럼 무조건 무력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이 시기를 '무단 정치'라고 해요.

하지만 일제는 1919년 삼일 운동을 계기로 무단 정치에서 '문화 정치'로 식민지 지배 전략을 바꾸어요. 조선 총독으로 군인이 아닌 민간인도 임명하기로 하고, 조선인도 총독부에서 일하게 해 주고, 언론의 자유도 보장해 주었지요. 하지만 이런 정책의 변화는 삼일 운동으로 거세진 독립 의지를 일단 진정시키려는 알뜰한 술수일 뿐이었어요. 《동아일보》나 《조선일보》 같은 신문이 창간되었지만, 심하게 감시하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내용은 없애버리거나 아예 신문이 나가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때부터 친일파가 생겨났어요. 일본에게 좋은 대우를 받은 친일파들은 자신을 조선 사람이 아닌 일본 사람이라 생각했고, 일본 정부에 충성을 다했어요. 심지어 우리 민족에게 온갖 나쁜 짓을 한 친일파들도 많았지요. 곧 문화 통치는 우리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는 척하며,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려는 고도의 기만책일 뿐이었어요.

이후 1931년 만주를 침략한 일본은 1937년 중·일 전쟁, 1941년 태평양 전쟁까지 일으켰어요. 일본은 우리나라를 전쟁을 위한 병참기지로 활용하면서, 우리 민족을 완전히 일본인으로 만드는 '민족 말살 정책'을 폈어요. 우리말과 글의 사용은 물론이고, 우리 역사 교육도 모두 금지했어요. 학교에서는 모든 수업을 일본어로 하고, 국사 시간에는 일본사를 배웠지요. 한마디로 조선이라는 나라와 민족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심지어 일본식 성과 이름으로 바꾸도록 했답니다.

이 시기에 우리 민족은 몰래 비밀 조직을 만들어 활동했어요. 또 임시 정부를 중심으로 해외 곳곳에서 일본인을 암살하거나 주요 건물을 파괴하는 등 의거 활동도 활발하게 벌였지요. 마침내 임시 정부는 군대를 조직해 독립을 쟁취할 계획을 세웠어요. 하지만 그보다 조금 앞서 일본이 패망하는 바람에 조선은 일제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 →라디오 방송

1924년 12월 17일 경성 관철동의 영화관 '우미관' 앞의 사람들로 북적거렸어요. 《조선일보》사가 주최한 무선전화 공개 방송 시험 즉, 라디오 시험방송을 들어보기 위해서였지요. 이보다 한 달 앞서 총독부 체신국이 음악이나 연극 같은 시험 방송을 하는 데 성공했지만, 민간이 주도한 시험방송은 이때가 처음이었지요. 오후 1시경 수표교 부근의 조선일보 사옥에서 전파를 쏘아 올리자, 우미관 무대의 대형 수신기의 나팔에서 이상재 선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선도 없이 소리가 전해지자, 사람들은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이 같은 조화를 볼 줄이야.' 등의 감탄사를 연발하며 흥분했어요. 조선말이 라디오를 타고 흘러나오기는 처음이었고, 정규 방송도 시작되기 3년 전 일이에요.

이후 우리나라는 민족 주도의 라디오 방송국을 설립하려 했으나 일제의 탄압으로 실패해요. 그리고는 1927년 사단법인 경성방송국이 정식으로 개국하면서부터 최초의 정규 라디오 방송이 시작되지요. 일본어 방송으로는 경제 시황을, 한국어 방송으로는 물가시세, 일기예보, 공지 사항 등을 내보냈답니다.

### 우리말 바로알기

“오늘 네 덕분에 책이 쓸쓸히 팔렸구나. 이거 용돈으로 넣어 뒀라.”

“아니에요. 제가 그냥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호아는 ( )를 쳤다.

(손사래, 손사래)

‘손사래’는 남의 말을 거절하거나 부인을 하면서 손을 휘젓는 행동을 나타내는 순우리말이에요. 한자어가 아니므로, ‘손사래’로 바르게 표기해야 해요.

모범답

- 책 내용 익히기** 1. 이야기 들려주는 제주 2. 동동 구리무 장수 아저씨  
3. 무선전화(라디오)의 시험 방송을 들으려고  
4. 동동 구리무 장수 아저씨가 호아의 아빠다.  
5. ①고뿔-감기 ②자동전화실-공중전화 부스 ③활동사진-영화  
④보통학교-초등학교

**생각 키우기** 예) 일제에 빼앗긴 조국이나 자유, 우리 민족의 역사 등

**우리말 바로 알기** 손사래